

환경은 우리의 얼굴

지난 5월 어린이날이 지나고 얼마되지 않았을 때였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서 독서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인가 찢어지는 듯한 동생의 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책을 집어 던지고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 집앞 냇가에서 동생이 냇바닥에 주저 앉은채 손으로 발바닥을 쳐 들고 울고 있었다. 발바닥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사이 엄마도 어디서 동생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는지 달려 오셨다.

“왜 그랬니?”

“발을 베었어, 엉엉엉”

엄마가 피를 닦으며 발가락을 보니 3cm 가량이 찢어져 속살이 빨갛게 보였다. 징그러운 생각이 들었으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7살짜리 동생이었기에 얼른 손으로 발가락을 꼭 잡아쥐며 피가 그치도록 했다. 겁먹은 동생의 눈에는 눈물이 샘처럼 고여 있었으며, 콧등을 따라 주르르 흘러 내리고 있었다.

냇가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깨어진 병 조각에 발가락을 뺨 모양이었다.

“빨리 보건소에 가자.”

엄마가 동생을 업고 나는 뒤에서 발가락을 손으로 꼭 쥐고 보건소에 갔다.

“쫄쫄쫄, 어찌다 그렇게 베었니?”

의사 선생님이 얼굴을 찡그리시며 안타까운듯 말씀하셨다.

상처를 소독하는 소독약이 들어가자 동생은 악을 쓰며 울어댔다. 땀을 흘리며 엄마와 나는 동생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았다. 냇가에서 볼때마다 상처가 훨씬 깊고 길었다. 4바늘이나 꿰맸다.

겨우 동생을 달래어 집으로 오면서 냇가를 보았다. 평소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오늘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니 더럽기가 이루말 할 수 없었다.

정류소가 약 30m쯤 떨어져 있고 도로가 가깝기 때문인지 연탄재, 비닐조각, 빈병 깨어진 것, 빈 통조림, 깡통, 알루미늄 음료수통, 고무신 떨어진 것, 막대기, 길레조각, 슬리퍼 떨어진 것, 각종 파자봉지와

이종기/ 정흥 정평국민학교 6학년

아이스크림 포장지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곳으로 넷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꼼꼼히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이 넷물을 맑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옳지! 애향단 일요 봉사활동을 하면 되겠군.’

지금까지 우리는 일요 애향단 봉사활동을 주로 골목길이나 한길을 쓸거나 풀을 베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만 하고 있었다. 넷가청소는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이자 일요일이었다. 전날 애향단 회의때결정된 대로 4학년 이상 30여명이 아침 6시 30분에 모였다. 안개가 자욱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모두 일찍 시간에 맞추어 나와 주었다. 고무장갑을 끼고 온 학생도 있었고, 장화를 신고 온 학생도 있었다. 정류소 옆에서부터 약 50m까지가 우리의 청소 구역이었다.

흙탕물이 일어나면 깨어진 병조각이나 작은 쓰레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맨 앞에서 가장 착실한 6학년 여학생 5명이 비닐봉지에 깨어진 병조각을 주우면서 올라갔다. 청소를 넷가의 아랫쪽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시작했다. 그 다음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낮으로 잡초를 베는 사람, 그 다음이 넷가에서 각종 오물을 주워 올리는 사람의 순으로 일을 해나갔다.

헌 바지나 못자리용 비닐은 길게 뻗어 돌로 감고 있어서 끊어 올리기가 무척 어려웠다. 모두들 땀을 뻘뻘 흘리며 맑은 일에 열중했다. 리어카 : 3대가 동원되어 강터의 매립지에 갖다 버렸다.

거리는 약 50m뿐이지만 시간은 매우 많이 걸렸다. 내가 4학년 때부터 일요봉사활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9시 10분까지 작업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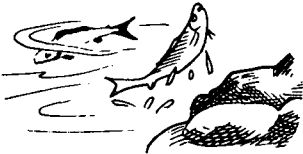
위에서 흘러온 맑은 물이 흙탕물 사이를 뚫고 흘러가고 있었다. 모두들 연장을 챙겨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뒤로 깨끗이 단장된 넷가의 맑은 물이 흐르는걸 보니 내 기분이 상쾌하였고, 넷가가 마치 새옷을 입은 듯 하였다.

약 1달이 지난 지금은 또다시 각종 풀이 우거지고 넷가가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정류소 부근의 여러 개의 쓰레기통을 놔두고 이곳에 쓰레기를 버릴까?’

‘왜 청년들이나 고등학생 형들은 병을 일부러 넷가에 던져 버릴까?’ 더러워진 넷가를 보니 마치 내 얼굴이 더러워진 것 같았다. 깨끗한 넷물은 마치 내 얼굴이 그렇게 깨끗한 것 같았는데…….

앞으로 약 90여일 남은 올림픽을 앞두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는 그렇게 많이 질서를 지키고 주위를 깨끗이 하자고 외치는데 왜 그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지 않을까? 국민수준이 낮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지방 사람들은 공중도덕이 없어서일까?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깨끗한 외국의 거리에 깨끗한 옷을 입고 활짝 웃으며 활보하는 모습을 보면 외국이지만 그곳이 부럽기도 하고 그곳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란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더러워졌을까?

아버지가 보신 신문에선 ‘지리산이 앓고 있다’ 또는 ‘무등산이 병 들고 있다’라는 제목을 여러번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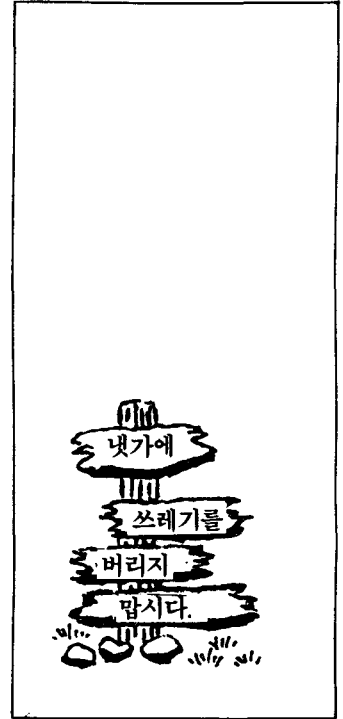
옛날 ‘동방예의지국’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었고, 지금처럼 질서나 예절이 옛날보다 희미해지니까 우리의 강산도 이렇게 더러워졌을까?

환경은 바로 우리의 얼굴이라 생각한다. 내 친구중에서도 얼굴이 깨끗하고 의복도 깨끗한 친구는 대개가 자기집도 깨끗하고 방안도 깨끗이 정돈된 것을 보았다. 얼굴이 더럽고 목에 때가 있거나 의복이 남루한 친구는 대개 집도 더럽고 어지러져 있었다. 확실히 얼굴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가 보다.

오늘 내 친구 은규와 함께 학교에서 오면서 우리집 앞의 냇가를 걱정했었다. 앞으로 냇가에 경고판을 우리 마을 어린이 애항단 이름으로 세우기로 했다.

‘냇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환경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



회 고

각 회원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연구·개발현황, 공지사항, 제언 그리고 시·수필 등을 200자원 고지에 적어 보내주시면 본지에 선별·게재하고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단, 보내주신 원고는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보내실곳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 1221호
(사) 환경보전협회 홍보부

T E L : 753 - 7640, 7669